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⑩ 명천 스님의 상추찔레 국수



▶한줄 요약
오목한 그릇에 상추의 잎만 4등 분하여 '田'모양으로 정갈히 담아주고, 그 위에 먹기 좋은 양으로 동그랗게 말아둔 국수를 차례대로 올린다. 물김치 국물을 넉넉히 따른 뒤, 아삭한 찔레순을 정갈하게 올려주면 완성.

소박한 국수 한그릇에 푸른 초여름 담아내다



명천 스님의 상추찔레국수
재 료 | 상추(500g), 찔레순 약간, 고춧가루/생강가루/소금(각각 1ts), 밀가루 풀국 (종이컵 1/3컵), 물 적당량.
만드는 법 | 1. 상추를 깨끗이 세척한 후 용기에 차곡차곡 담는다. 2. 분량의 양념과 물을 잘 섞은 뒤 상추/찔레순과 골고루 버무려 준다. 3. 실온에 하루 두면 물김치가 완성된다. 4.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보관한 뒤, 삶은 소면과 함께 내면 완성!

푸른 물 흐르는 땅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예로부터 물이 풍부하고 산세가 좋기로 이름난 이곳의 내력(來歷)은 이 고요하고도 단정한 고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느낄 수 있다.

옛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안의버스터미널, 이곳에 도착한 여행자의 눈 앞에 펼쳐지는 것은 장대하게 흘러넘치는 푸른 남강이다. 수령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오리나무 숲이 강의 곁을 지키고, 또 수백 년 동안 흐르는 강물도, 인간사의 쉼 없는 흥망 성사도 묵묵히 바라보았을 저 기세등등한 누각 '광풍루'가 반겨주는 이 풍요로운 땅. 한때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길목이자, 역참과 역말이 있던 교통요충지였던 이 땅의 과거는 오늘날의 고즈넉한 풍경과는 또 다른 빛이 머문다.

특히 이곳은 우리 농업사에 혁신을 일으킨 일대 사건의 진원지이기도 한데, 바로 연암 박지원이 우리나라 최초로 물레방아를 만든 곳이기 때문. 안의현감으로 발령을 받았던 연암은 자신이 중국에서 목격한 과학기술을 통해 조선의 농업기술을 개량하고, 고통받는 백성의 삶을 구제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는 곧 조선 전역으로 퍼져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시대 18품계 가운데 고작 종육품의 말단기관장이었지만, 평생 민중의 삶에서 눈 돌리지 않았던 연암의 애민정신이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 땅 깊은 산자락에는 아직도 오래전 그 날의 물줄기와 같은 푸른 강물이 흐른다. 그리고 연암의 모습과 닮은 한 수행자가 이곳에서 또 한 번 여여(與與)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연암의 애민(愛民)이 그러했듯, 온 삶을 통해 자신의 쓰임을 실천하는 수행자. 바로 명천 스님이다.

구름 향기 머무는 곳에

"어서 오세요, 오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울도 담도 없는 산중 도량, 점심 공양 시간이 다 되어서야 겨우 오른 이곳에서 명천 스님을 만났다. 첫눈에 들어온 것은 뜨거운 햇살을 등에 지고, 한 소쿠리의 감자를 손질하고 계신 스님의 모습. 돌아보니 이런저런 초록이 가득



심어진 채마밭이 저 멀리 한참이다.

물 깊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용추계곡, 그리고 그 곁에 자리한 고적한 암자 향운암(香雲庵).

이곳의 암주(庵主)이자, 다양한 불교예술 분야의 장인으로 명성이 높은 명천 스님. 하지만 그 유명세에 비해 잔잔한 스님의 목소리와 슬며시 배어 나오는 웃음은 너무나 맑고 다정하다. 푸른 물, 푸른 숲과 오랜 시간 어우러지면 사람마저 푸르러지는가 싶을 만큼.

스님의 국수를 만나러 먼 곳을 찾아왔지만, 그 전에 명천 스님만의 특별한 이력을 빼놓을 수는 없다. 스님은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으나 그림을 그리고, 바느질을 배운 적이 없었으나 가사(袈裟)를 짓는 수행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미 지난 2009년 전통 가사 '복전의'로 불교미술대전 최고상을 수상한 장인으로, 또 가사원의 편수(片手, 불사의 책임자)이자 국내에서 불교의 전통가마 '연'을 제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 손꼽힌다.

그 무엇도 정식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 하지만 사찰음식과 꽃꽂이, 서예, 회화, 목조각, 염색과 옻칠까지 스님의 손닿는 곳마다 피어나는 아름다운 세상. 아무리 깊은 산중에 있어도 그 빛이 가려질 수는 없는 법. 알음알음 소문난 스님의 솜씨는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해 여러 번 소개되었는데, 그중 단연 화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스님의 음식 솜씨다.

스님들의 국수 이야기를 찾는다며 염치없이 한 그릇을 청한 이에게 그저 이곳으로 오라, 반겨주신 명천 스님. 오늘 스님이 준비한 국수는 산도, 물도 푸른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맛. 바로 향운암의 여름을 책임지는 '상추찔레 국수'다.

초여름을 닮은 맛

"상추찔레 국수는 이제 제철이 시작됩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먹기에 좋거든요. 텃밭에 있는 상추를 한 번에 다 먹기는 어렵지만, 상추 물김치를 담으면 버리는 것 없이 잘 먹을 수 있어요. 또 찔레는 봄에 부드러운 줄기가 올라오는데, 시기가 조금 늦어도 먹을 수 있으니 잘 골라와서 같이 김치를 담습니다."

유독 국수를 좋아하셨던 은사스님(성수 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 1923~2012)을 모시며, 명천 스님의 국수 레시피도 타래처럼 술술 쌓인 터다. 그중에서도 은사스님께서 유독 좋아하신 국수가 바로 이 물김치 국수였다.

날씨가 더워지고, 상추 자라는 속도가 먹는 것보다 빨라지면 상추 물김치를 담아야 할 때. 풀 국에 생강과 고춧가루만 조금 넣고 훌훌 저어 갓 딴 상추 한 동이에 부어주면 끝. 산에서 채취한 찔레순을 함께 넣고, 하루만 지나면 밤새 시원하게 익어 신통한 맛을 내는 것이다.

"예전에는 찔레 순이 올라오면 그걸 꺾어서 간식으로 먹었어요. 껍질을 까서 먹어보면 약간 떫기도 하고,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찔레로 김치를 담으면 약간 배릿한 특유의 향이 나지요."

스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상추 물김치 통을 여는 순간. 상쾌한 향기가 사방에 터진다. 김치라기보다 상큼한 주스에 가까운 향기, 염치도 없이 침을 꼴깍 삼키게 하는 그 초록의 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다시 눈을 사로잡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국수 담음새!

오목한 그릇에 상추의 잎만 4등 분하여 '田' 모양으로 정갈히 담아주고, 그 위에 먹기 좋은 양으로 동그랗게 말아둔 국수를 차례대로 올린다. 물김치 국물을 넉넉히 따른 뒤, 아삭한 찔레순을 정갈하게 올려주면 완성. 함께 곁들인 찬은 아까 스님께서 열심히 손질하신 돼지감자로 만든 고소한 전이 올랐다. 오래전 은사스님께 공양을 올리던 그 모양새, 그대로다.

"은사스님께서 국수가 양이 많다 하실 때가 있어요. 크게 한 번에 담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담으면 원하는 만큼 적당히 덜어 드시기에 편합니다."

낯선 이를 향한 미소도, 자비로운 한 그릇 공양도, 먹는 이를 생각하여 담는 정성까지. 모든 것이 여여하게 느껴지는 순간. 문득 이 소박하고 향기로운 국수 한 그릇이 만든 이를 닮았구나, 싶어 고개를 숙인다.

나의 쓰임을 발원하다

"뭐라도 해놓으면 후대의 사람들에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스님께 '가사 불사'의 시작을 묻자, 단번에 담박한 답이 전해진다. '우리 것 중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전국을 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고불서와 탱화를 보며 과거에 존재한 실체를 찾기 위해 애썼다. 장인을 찾아 배움을 청하고, 국내는 물론 외국의 가사를 비교해 가며 한국불교만의 가사 제작 기술을 찾아온 시간이다.

"군대를 다녀와서 깨달았어요. 나는 참선도 많이 못 하고, 학식이 풍부해 설법을 잘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도 어렵겠구나, 하고요(웃음). 그러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노력을 해보자 싶었지요. 뭐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스님 손은 거칠다. 홀로 암자를 돌보고, 땅과 씨름하며 삶을 일군 흔적이 고스란히 손에 남았다. 혹여 거친 손으로 귀한 천에 생채기를 낼까, 손가시들이 겨우 가라앉는 겨울이 되면 그제야 손끝을 단정히 하고 바늘을 잡는다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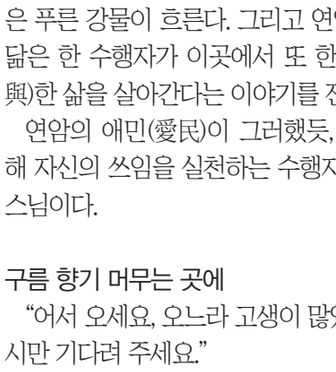
"우리 도반스님 중에 아주 유명한 강사스님이 계세요. 그런 스님들은 참 또렷이 포교를 잘 하고, 또 후학들을 잘 지도하는구나, 싶지요. 그런데 나는 너무 촌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웃음). 하지만 내가 이런 모습을 너무 부끄러워 말자, 속으로 생각해 봐요. 큰 계획은 못 세워도, 제 솜씨가 1인자는 못되어도 그냥 열심히 해서 누구한테라도 도움 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푸른 강물은 끝내 한 길을 향해 흐르는 것. 오래전 연암의 바람이 그러한 것처럼, 자신의 쓰임을 기원하는 스님의 마음이 길이 되어 흐른다. 끝내 저 큰 자비의 바다가 되어 흐른다.

〈작가〉

사찰에 난무하는 눈탱이!

삭발에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을 보는 일반업자들의 시선들! .... 세상 물정에는 좀 어두운분들이겠거니 하며 눈탱이 염불시설들로 가득채움 눈탱이 : 속은 비어있는 그럴듯한 동남아 부품으로 가득채워 바가지를 쒸우는 시설업자들의 비속어로 스님들은 여기에 거의 속음


눈탱이 시설의 표본

눈탱이 시설의 결점

1. 다루기 복잡하여 고장이 잘남 (A/S 불가)
2. 복잡한 기능으로 소리 기능이 분산되어 저질소리
3. 또한 염불이 힘들면 성대 질병과 스트레스 누적
4. 법당서 본사 견본과 법당 제품과 양손의 마이크로 스님 자신이 성능비교시 장난감 소리차이 확인

■ 본사 제품 : 마이크는 이태리 숍스제품, 디지털앰프 스피커는 MADE IN KOREA 확인

※ 특징 : 앰프 다루기 1초, 남해의 토굴부터 설악 신흥사 설법전까지 2천여 시설동안 단 한곳도 고장이 없었음. 명산대찰의 수천만의 시설과 소리비교시 장난감 성능차이(반드시 확인) 가격 기존시설과 1/3 차이 확인, 앰프 스피커 최신디지털

▣ USB겸용 디지털앰프 법당스피커 2개, 법당 밖 스피커 2개,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시설가격 190만원부터~ 무한대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시중에 없음

가격 ₩ 89만원


최신 디지털 앰프 USB겸용 유 ·무선겸용 마이크 4개 동시사용
출력 3kw 대형스피커 12개까지 연결가능

염불전용스피커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재생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89만원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경혈자극요법 287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